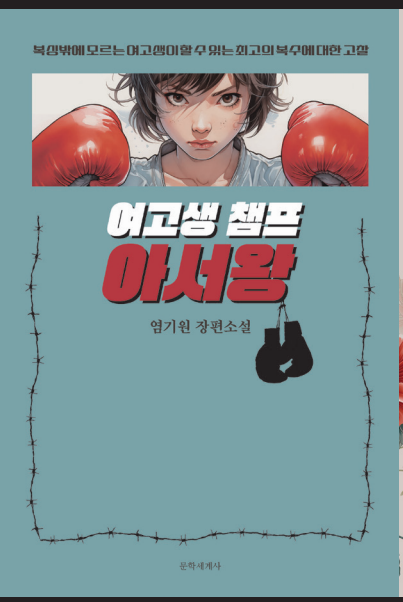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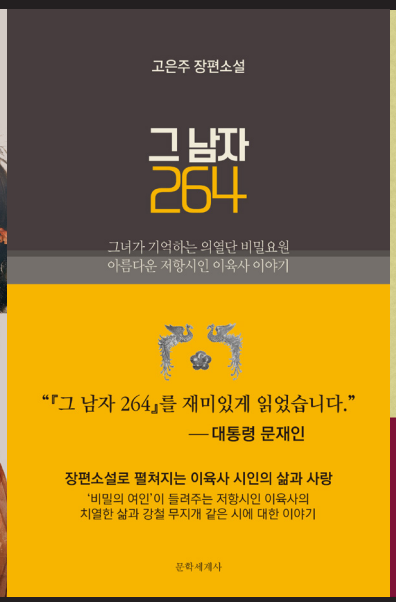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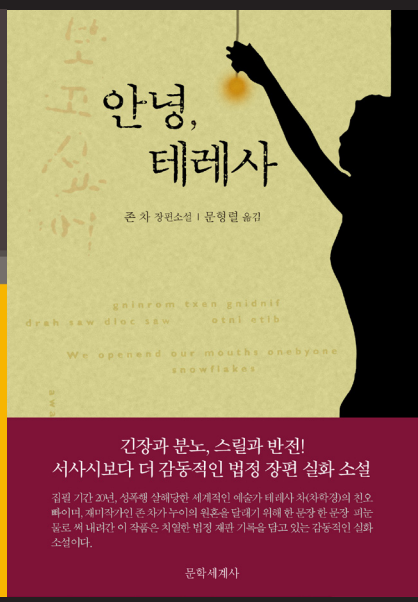
CONTENT IP MARKET 2024
콘텐츠 IP 마켓 2024

2024. 11.19.(화) - 11.21.(목)
서울, 코엑스 | 그랜드볼룸·아셈볼룸

MUNHAK SEGYE-SA
문학세계사







문학세계사

MUNHAK SEGYE-SA

1. 도서 출판

문학세계사는 창립 이래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2,000여 종 이상의 도서를 출간.

창작시집, 문학연구서, 시인연구서 등 한국 문학에 깊이 있는 연구와 창작을 중심으로 간행하여 한국문학사의 지층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기여.

2. 문학 IP 사업

문학세계사는 출판된 문학 작품들을 영상화, 웹툰화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하는 IP 사업을 진행. 이를 통해 출판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

3. 국내외 저자 발굴 및 지원

한국의 주요 작가들과 협력하며 신진 작가를 발굴, 이들의 작품이 국내외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

1979년 5월 16일에 창립된 문학세계사는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하며,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0여 종 이상의 도서를 출간하며 한국 출판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다수의 창작시집과 문학연구서, 시인연구서를 간행하며 한국문학사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학세계사는 독자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책을 펴내는 것을 목표로, 인문학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류근의 『싸나희 순정』, 강풀의 『순정만화』, 『바보』,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파트』, 『타이밍』, 『26년』 등 10여 개 영화의 원작사입니다. 현재 염기원 작가의 장편소설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가 웹툰,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출판도서상을 수상한
재미在美 한인 작가 이매자의 첫 한국어 소설

음천音天

이매자 장편소설

Independent Publishers Book Awards
미국
독립출판 도서상
수상

Thorpe Menn Literary Excellence Award
소프 멘
문학상 우수상
수상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났니?

첫문장 “이를 훤히 드러내고 웃지 마라.”

로그라인: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남녀가 운명처럼 만나, 전쟁의 비극과 생존의 고통 속에서 사랑과 복수를 오가는 처절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양은 귀용의 첩으로 들어오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음천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수양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이며, 음천은 그녀가 남편의 새로운 사랑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수양은 내심 첩으로서 귀용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음천은 그로 인해 자신이 본처로서의 위치를 잃을 것을 걱정한다.

음천과 귀용의 관계는 결혼한 지 오래되어 익숙하지만, 금슬이 나쁜 편은 아니다. 음천은 남편에게 여전히 애정을 느끼고 있지만, 남편이 첩을 맞이하게 되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안해진다.

음천은 딸 미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나는 어머니의 유일한 위안이며, 음천은 딸이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나는 자신이 '업둥이'(입양아)라는 소문을 듣고 혼란스러워한다.

수양을 첩으로 맞이하며, 작은 잔치를 연다. 음천은 이 잔치에서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고통과 질투로 불안해한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본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남편과 수양의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이 커진다.

드디어 귀용은 수양과 함께 첫날밤을 보낸다. 하지만 귀용은 음천과 수양에게 셋이 함께 자자는 황당한 제안을 한다. 귀용은 첩을 들인 상황에서도 본처인 음천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음천에게 치욕스럽게 다가온다.

결국 음천은 남편의 행동과 내면적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남편과 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 같은 느낌에 음천은 쓰러지고 만다.

게다가 전쟁의 위협이 음천과 가족을 엄습한다. 음천은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과연 음천과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한국전쟁과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서사
시대를 초월한 여성의 억압과 심리

『음천音天』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 음천의 삶을 통해 가족, 정체성,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한다.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압박, 그리고 선과 악의 상대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매자Maija Rhee Devine

1966년 한국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수도여자사범대학과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다 1970년에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주리 주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했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일곱 살 때 겪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 소설 『음천The Voices of Heaven』으로 〈포어워드 리뷰스〉 선정 '올해의 출판상'(다문화 부문, 군사와 전쟁 부문)을 받았으며, USA 베스트 책 역사소설과 문화소설 부문에 최종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또, 소프 멘 문학상 우수상Thorpe Menn Literary Excellence Award과 미국 독립출판도서상Independent Publishers Book Awards(전자책 소설 분야)을 수상했다.

차례

Part1 한국전쟁 전前

Part2 한국전쟁

Part3 전쟁 후後

After story 금의환향의 길모퉁이에서

〈작가의 말〉 살점이 베이는 듯한 고통과 한

"여기 그 시대를 관통한 또 다른 여성사가 있다.
똑똑한 여성이라고 예외일 수 없던
습속의 포승줄에 묶여 괴로워야 했던 인간의 이야기이다."

—박상화(시인)

"놓치지 말아야 할, 복합적이면서도
지극히 한국적인 러브 스토리"

—커커스 리뷰Kirkus review

"이매자의 문장은 문화의 규칙과 관습을
포착하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미국대학여교수협회AAUW 트로프 멘 문학 우수상 위원회

1. 역사적 배경과 감동적인 서사

『음천』은 한국전쟁 전후의 배경을 다룬 작품으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전쟁이라는 강력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작품에 진정성과 무게감을 더하며, 이는 역사적 서사로서의 매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고통과 희생, 가족을 위한 헌신을 담은 서사는 감정적인 몰입도를 높이며 인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2. 입체적인 캐릭터와 복합적인 갈등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뉘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오는 복합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이 입체적인 캐릭터들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층적인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캐릭터성은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에서 강한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 가능

음천의 서사는 전쟁과 개인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다루고 있어, 드라마,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비주얼과 상징성

작품에서 다루는 전쟁 장면들과 인물들의 극적인 변화는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비주얼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인물들의 감정적인 고뇌는 영상화될 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음과 천, 즉 하늘과 소리의 상징성은 철학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차별화된 예술적 깊이를 가진 콘텐츠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메시지

음천은 단순한 전쟁 소설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갈등을 다룹니다.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선택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특히 문학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긴장과 분노, 스릴과 반전!
서사시보다 더 감동적인 법정 장편 실화 소설

집필 기간 20년, 성폭행 살해당한 세계적인 예술가 테레사 차(차학경)의 친오빠이며, 재미작가인 존 차가 누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피눈물로 써 내려간 이 작품은 치열한 법정 재판 기록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실화 소설이다.

문학세계사

연쇄 강간범에 의해 희생된 세계적인 예술가
테레사 차의 죽음에 얽힌 실화 소설!

1982년 미국 뉴욕의 한 빌딩 지하층에서 촉망받는 젊은 여성 예술가 테레사 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 빌딩 관리원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법정에 선다. 모든 정황들이 그를 향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없어 법정에서 상황이 뒤집히고 만다. 작가는 가족들, 그리고 뉴욕 수사관들과 함께 끈질지게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찾아나선다.

로그라인: 1982년 뉴욕, 세계적인 예술가 테레사 차가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가족은 법정에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며, 그녀의 예술적 열망과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1982년, 뉴욕의 한 빌딩 지하에서 촉망받던 예술가 테레사 차가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그녀는 세계적인 예술가로,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조이 산자는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그는 빌딩의 관리인으로,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가 있었다. 테레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테레사의 오빠 존 차는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은 법정에서 테레사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몇몇 증인들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며 새로운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리며 사건의 진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가족들은 테레사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 존 차는 법정에서의 대결뿐만 아니라 테레사의 예술적 업적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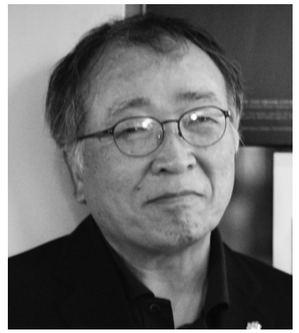
중요한 증인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증언을 통해 테레사가 사건 당일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녀가 겪었던 일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증언들조차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사건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안녕, 테레사』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테레사 차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법정 장편 실화소설이다. 영문판으로도 출간 예정인 이 작품은 그녀의 오빠인 재미작가 존 차(John Cha, 차학성)의 10년 동안의 구상과 20년 집필 기간을 거쳐 마침내 미학적인 문체와 탄탄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살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추적과 법정 공방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전개되는 이 소설은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 불릴 만큼 변호인들의 치밀한 두뇌 게임이 스릴과 반전으로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이 책은 살인 사건을 다룬 재판 기록을 담고 있지만, 느닷없이 닥쳐온 가족의 잔혹한 죽음이라는 일상적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죽음의 형식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구성될까?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남겨진 자들의 애절한 그리움과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독자들의 공허한 가슴을 아프게 적신다.



존 차

존 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1945년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 1946년 월남했다. 1961년 경기고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Marquette 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미국, 중동, 북해 등 해양 시설 건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영문 집필, 영문 잡지, 영문 출판사업 등 문학 활동을 했다. 1990년 문예진흥원 번역상 수상, KoreaTimes 번역상 수상, 제37회 PEN번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버드나무 그늘 아래*Willow Tree Shade*』,『죽느냐 사느냐, 창업가*The Do Or Die Entrepreneur*』 등이 있다.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강렬한 법정 드라마

『안녕, 테레사』는 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실화 기반의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주인공 테레사의 감정적 여정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들이 현실적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실화는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시청각적인 요소로 영상화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2. 감동적인 캐릭터 중심 서사

테레사는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여성 캐릭터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성 서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녀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인권과 정의에 대한 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호소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

성폭행과 법적 정의,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라는 주제는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MeToo 운동 등 세계적인 여성 인권 이슈와 맞물려 이러한 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영상화 및 미디어 확장 가능성

『안녕, 테레사』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화에 매우 적합한 스토리입니다. 법정 드라마와 심리 스릴러적 요소를 결합하여, 감정의 파고를 타는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가능하며, 주인공의 성장과 치유 과정이 감동을 주는 서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입니다.

5. 사회적 메시지와 현대적 공감 요소

작품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은주 장편소설

그 남자 264

그녀가 기억하는 의열단 비밀요원
아름다운 저항시인 이육사 이야기

"『그 남자 264』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대통령 문재인

장편소설로 펼쳐지는 이육사 시인의 삶과 사랑

'비밀의 여인'이 들려주는 저항시인 이육사의
치열한 삶과 강철 무지개 같은 시에 대한 이야기

문학세계사

'꼭 한편의 영화를 보는듯했다'

중간중간 이육사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접하면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읊어주며,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버랩 되었다. 의열단이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한 독립운동 비밀 요원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다 밝혀지지 않은 삶이 흡사 영화 주인공같지 않은지. 그 분이 남긴 글이 마치 연극이나 영화의 인터미션처럼 다가왔다.

—알라딘 '水浮船行' 님의 리뷰 중에서

책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책을 따라가는데, 그 장소며 분위기가 눈 앞에 잘 그려졌다. 영화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다.

—알라딘 '무비S' 님의 리뷰 중에서

꼭 한편의 영화를 보는듯했다. 대화하면서 그남자를 알아가고 러브스토리인듯 하면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아간다는것

—교보문고 'wn******' 님의 리뷰 중에서

로그라인: 저항시인으로서의 열정과 독립투사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 264의 삶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 내려간다.

일제치하 30년째로 접어들면서 독립에의 열망이 근대의 욕망과 친일의 기세에 밀리던 1939년 가을, 종로 이정목 뒷골목의 작은 서점에 한 남자가 들어선다. 그의 이름은 이육사. 그해 여름 《문장》에「청포도」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중인 시인이자 항일 저항 단체의 비밀요원인 그를 알아본 친구 덕분에 서점 여주인은 그와 짧고 강렬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육사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였던 서점 여주인은 어느날 밤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를 골방에 숨겨주면서 밤새 긴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 고마움을 전하러 찾아온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에게 빠져든다. 이후로 그의 비밀스런 행적에 동행하고 그가 요양을 떠난 경주에도 찾아가면서 그의 삶과 문학을 깊이 알게 되고 그에게 흠모의 마음을 드러낸다.

의열단의 군관학교 졸업 동지였던 처남의 배신으로 아내와 냉담하게 지내고 있던 육사도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만, 나라를 배신할 수 없듯 아내를 배신할 수 없었기에 결국 그녀에게 한 편의 시를 써주고 북경으로 떠난다. 태평양 전쟁 이후 극에 달한 일제의 수탈과 만행 속에 그에게는 끝까지 가야할 길이 있었다. 동료 문인들이 줄줄이 변절하던 그 무렵에 정반대로 그가 걸어갔던 길은 퇴계의 후손으로 태어나 한학을 익히면서 내면화된 유교적 이상과 중국 유학 등을 통해 습득한 혁명 의식이 결합된 당위의 길이었다.

친구의 오빠를 통해 육사의 소식을 전해 듣던 그녀는 이듬해 그가 북경의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사망했음을 알게 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한 동지로부터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전해 듣는다. 그 이듬해 해방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분단과 전쟁을 거쳐 살아남은 자들의 비애까지 목격하며 살아온 그녀. 칠순이 되던 해에 마침내 그 모든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는데, 그 원고가 30년이 흐른 지금 조카의 손에 들어오는데…….

저항시인 이육사의 삶과 작품세계를 그린 최초의 장편소설!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고은주가 이육사의 삶의 동선을 새롭게 밝히는 예리한 시각!

저항시인 이육사에 대한 장편소설 『그 남자 264』는 퇴계의 후손으로 태어나 한학을 배우며 붓을 들었던 남자, 도쿄로 유학하고 베이징으로 유학하며 펜을 들었던 남자, 의열단이 난징에 세운 군관학교에서 총을 들었던 남자, 끝내 총을 쏠 기회는 얻지 못했으나 총탄보다 단단한 모국어로 강철 무지개 같은 시詩들을 남겨놓고 떠난 그 남자, 이육사에 대한 이야기다.

“

그의 이름은 이육사라고 했다.
혹은 이원록, 이원삼, 또는 이활.
무엇으로 불리든 그는 264였다.
수인 번호 이백육십사, 이육사.

어쩌면 이 소설은 “육사에게 단 한 사람의 비밀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다.”(181쪽)는 신석초 시인의 글이 있었기에 탄생되었는지 모른다. 작가는 ‘비밀의 여인’을 통해 이육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녕 연애는 불가합니까?” 하고 묻는 22세 여인에게 이육사는 아벨 보나르의 [우정론]을 거론하며 “그러니, 연애말고 우정으로 합시다.”라고 답한다.

—예스24 ‘이야기’ 님의 리뷰 중에서

차례

수인 번호 264

늦게 도착한 이야기

비밀의 남자

다른 기억 속의 이야기

강인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계속될 이야기

〈작품 해설〉 어두운 밤의 별빛을 노래함

〈작가의 말〉 경계에서 부르는 노래

글 쓰는 사람들이 자주 힘의 논리에 휘말리고 내면의 진실에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이 때, 육사는 한 존재를 향해 탐구의 시간을 바친 이 작가의 노고는 얼마나 귀한 땀방울이겠는지 생각한다. 이 한 편의 소설이 작가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 방민호*(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

고은주 소설가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95년 단편소설 「떠오르는 섬」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1999년 첫 장편소설 『아름다운 여름』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후, 소설집 『칵테일 슈가』, 『시나몬 스틱』, 장편소설 『여자의 계절』, 『현기증』, 『유리 바다』, 『신들의 황혼』, 『시간의 다리』, 『드라마 퀸』을 출간하며 '관계 속의 인간'과 '역사 속의 인간'을 다양하게 그려왔다.

1. 강렬한 역사적 인물과 이야기

이육사라는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육사는 감옥 생활을 통해 수인 번호 264를 얻게 되었고, 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이 번호는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중량감을 어필할 수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2. 입체적인 캐릭터와 서사

이육사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시인이자 인간으로서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와 감정적 고뇌, 그리고 저항의 자세는 입체적인 캐릭터로서 다양한 해석과 서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드라마화나 영화화 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문학적 깊이와 상징성

작품 속에서 이육사는 단지 저항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시와 문학적 세계가 녹아 있습니다. 문학적 상징을 활용한 스토리 전개는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선 깊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깊이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확장 가능성

이 IP는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감옥 생활을 통한 투쟁과 고뇌, 시인의 문학적 성취 등 비주얼적으로도 강력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 영상화 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이라는 보편적이고 강렬한 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5. 시대적 공감과 사회적 메시지

이육사의 생애와 그의 시는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의 저항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복싱밖에 모르는 여고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에 대한 고찰

여고생 챔프 아서왕

염기원 장편소설

문학세계사

"염기원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 —고은주(소설가)

"우리 문학사에 너무 늦게 도착한 작가" —류보선(문학평론가)

"시대가 주목해야 할 하드보일드 구라꾼" —장강명(소설가)

"약속, 헌신, 운명, 영원, 그리고 사랑.
이 낱말들을 난 아직 믿습니다. 영원히." —故신해철(음악인)

서아는 애슬이와의 약속을 지켰다. 엄마를 위해 헌신했다. 우연히 시작한 복싱이 운명이 되었다. 영원을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건 결국 사랑이었다.

—〈작가의 말〉 중에서

ISBN 979-11-93001-36-3 03810
값 15,000원

로그라인: 복싱 챔피언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고등학생 서아는 가족의 위기와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다. 복싱 링 안팎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서아는 자신만의 왕관을 쓰기 위해 치열한 도전을 이어나간다.

소설의 주인공은 왕서아는 학창 시절부터 '아서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살아왔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마이 네임 이즈 아서왕"이라고 말하고 나서부터였다. 복싱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친구 애슬이의 권유 때문이었다. 장명팔 관장의 고된 훈련을 받고 왕서아는 아마추어 복싱 플라이급의 한국 챔피언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로드워크와 체력 훈련을 하고,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했다.
서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비닐하우스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에서 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서아는 복싱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점점 더 아픈 곳이 많아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어느 주말, 친구 애슬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아를 찾아왔다. 그는 서아에게 오천만 원을 주며 비밀 거래를 하자고 한다. 오천만 원은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 제안은 서아와 체형과 얼굴까지 비슷한 소미라는 소녀가 저지른 폭력 사건에 대해 서아가 대신 자수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소미의 아버지는 서아의 어머니가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채무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서아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소미의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붙여주었고, 서아는 조사실의 CCTV를 통해 피해자 세희가 소미에게 맞는 영상을 목격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병원에 있던 세희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단순폭행에서 폭행치사로 혐의가 바뀌었다. 경찰과 변호사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서아를 형사재판에 넘겨버렸다. 결국 서아는 여섯 명이 사용하는 구치소 4인실에 수감되었다.

앞으로 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복싱밖에 모르는 여고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에 대한 고찰

『여고생 챔프 아서왕』은 여고생이라는 발랄한 단어가 들어간 제목과 달리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 많다. 그럼에도 독자가 빠르게 다음 장을 넘기기를 기대하며, 저자 역시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집필했다. 보름에 걸쳐 하루 평균 47매를 썼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달리기, 피아노라는 루틴을 지키며 온전히 이 글에만 매달렸다. '복싱밖에 모르는 여고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에 대한 고찰.' 퇴고를 마친 뒤 저자가 엑셀에 기록한 한 줄 요약이다.

제5회 황산벌청년문학상 수상 작가 염기원의 신작 장편소설

"염기원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

—고은주(소설가)

"우리 문학사에 너무 늦게 도착한 작가"

—류보선(문학평론가)

"시대가 주목해야 할 하드보일드 구라꾼"

—장강명(소설가)

차례

나는 아서왕 7

조금만 참아, 엄마 19

폭력 47

반전 77

다섯 평짜리 인생 107

면회 145

귀휴와 범털 171

부활 203

복수 223

에필로그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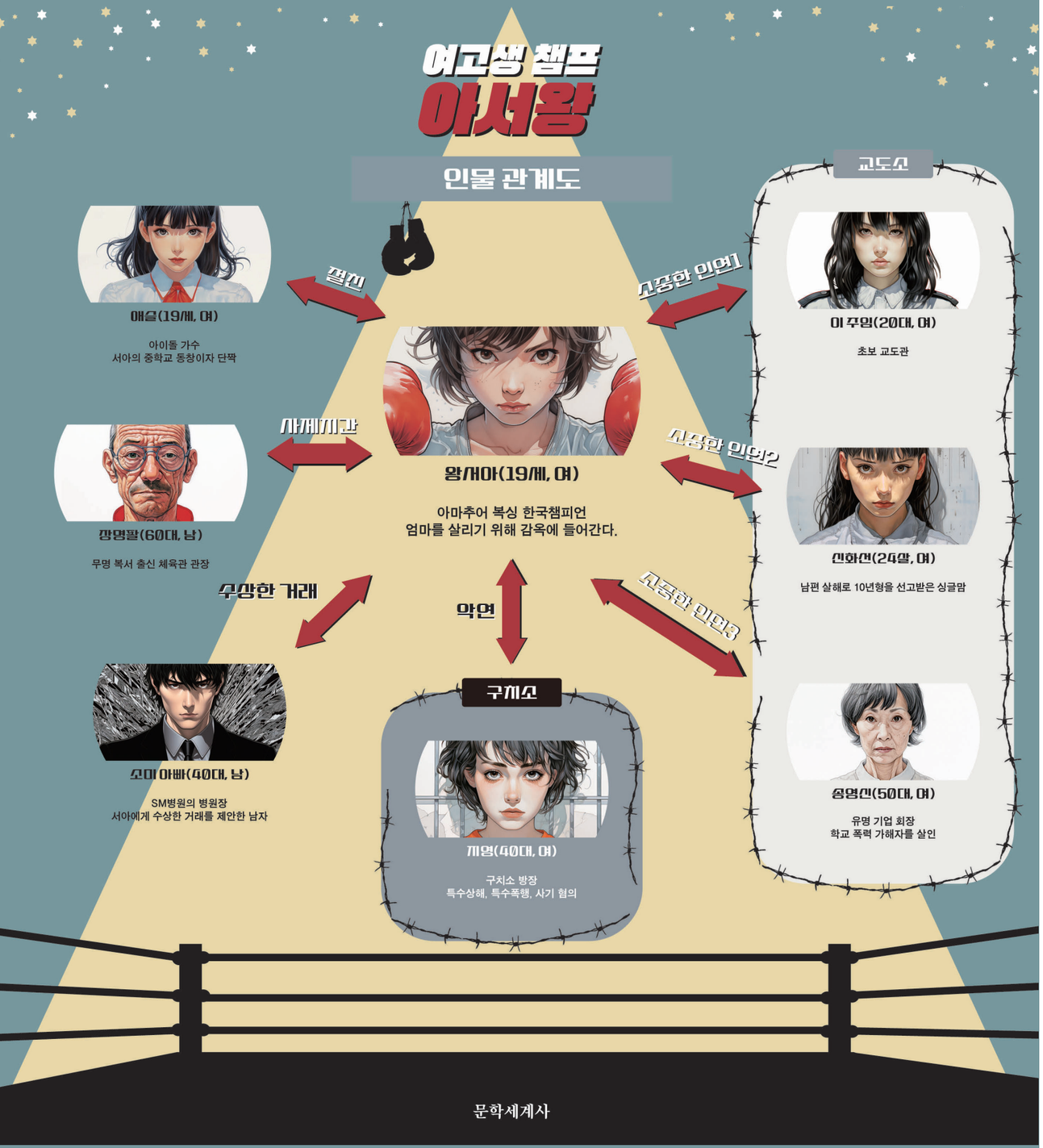
작가의 말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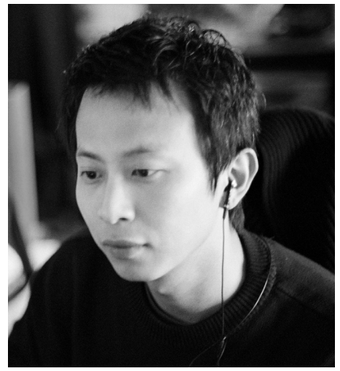
"서아, 뭐하니? 빨리 나와."
짝에게 물어보니 한 사람씩 나와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후다닥 앞으로 나갔다. 자기소개라고 해봤자 자기 이름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영 어색해서 자꾸 더듬거렸다.
"마…… 마이 네임 이즈, 왕, 서, 아."
"서아야. 영어에서는 이름을 뒤집는다고 했잖아."
"네. 마, 마이 네임 이즈, 아, 서, 왕."
"아서왕?"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반 아이들 모두 따라 웃었다. 책상을 치며 웃는 애도 있었다.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교탁 앞에서 굳어버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서왕이라는 별명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본문 중에서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복수가 꼭 폭력일 필요는 없다. 상대보다 잘 사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닌가 싶다. 유쾌한 비극, 『여고생 챔프 아서왕』이다.

—문학뉴스 , 김미옥(문예평론가)





소설가 염기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입학 후 벤처 기업 세 개를 연달아 창업하고 공중파에도 출연하며 주목을 받다가 글을 쓰겠다며 돌연 전국 일주를 떠났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포털 회사와 미디어랩사를 거치며 IT 노동자로 살다가 소설을 쓰기 위해 스타트업을 정리했다. 그해 제1회 융합스토리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15 minutes〉로 최우수상을, 이듬해에는 계간 [문학의봄] 신인상 공모에 단편소설 〈지옥에 사는 남자〉로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9년 제5회 황산벌청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블루아이』, 『여고생 챔프 아서왕』,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 『구디 얀다르크』, 『인생 마치 비트코인』을 썼으며 〈월급사실주의〉 동인이다.

1. 독창적이고 강렬한 스토리라인

『여고생 챔프 아서왕』은 복싱을 소재로 한 독창적인 이야기로,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을 향한 헌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현대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복싱과 같은 강렬한 스포츠와 감정적인 서사를 결합한 점을 강조해 차별화된 콘텐츠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 가능

이 IP는 드라마, 영화, 웹툰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와 법적 갈등, 가족 문제 등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복수라는 강렬한 테마는 시각적으로도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체적인 캐릭터

주인공 왕서아는 단순한 복싱 챔피언이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등 복잡한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입니다. 캐릭터의 다층적인 성격과 감정 변화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스토리텔링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소력

복싱과 같은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여성 주인공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극복하는 이야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IP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이슈 반영

이 작품은 복싱을 통해 자아를 찾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와 법적 갈등, 가족 간의 희생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 전개가 가능한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성공 사례와의 연계

기존에 성공한 유사한 스포츠/성장 이야기 또는 청소년 드라마, 웹툰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렬한 드라마틱 요소가 풍부하다는 점은 다른 미디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7. 상업성과 예술성의 결합

작품 자체는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와 흥미로운 설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깊이도 갖추고 있어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작품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로그라인: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의 생존 본능이 교차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야생의 ‘블루아이’는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운다.

This Is Africa!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여는 염기원의 신작 장편소설
“아프리카 대륙의 신비를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다”

2024년, 문학계가 주목하는 신진 작가 염기원의 최신 장편소설『블루아이』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깊이 있는 감정과 사색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나’,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고독한 리카온 ‘블루아이’로,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교차하며 진행됩니다. 두 서사는 상호 은유적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본성, 삶의 의미, 그리고 사랑과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재부팅될 수메일 있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내 인식은 피상적 수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압도적인 대자연, 천혜의 자연환경, 태초의 신비, 지구 최후의 낙원인 줄 알았던 이곳은 동시에 세상의 끝이었다. 나는 한국을 피해 이곳에 왔다. 내가 태어나 사는 땅을 피해 달아날 자유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끝에서 놓인 이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가?”

—본문 중에서

로그라인: 시간 여행을 떠난 코누 박사와 초코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비밀을 탐험한다. 누리호의 설계와 발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우주과학의 흥미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우주과학 도서 『우주로 날아라, 누리호!』

한국천체관측교육연구회 추천 도서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와 함께하는 우주과학 이야기

『우주로 날아라,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최초의 책이다. '코누 박사와 초코의 시간 여행'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문 및 자료 제공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누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1차 발사로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 아쉽게도 궤도 진입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독립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간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감동적인 순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타임머신 박사 코누와 호기심 많은 생쥐 초코가 2022년 지구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우주 탐험 이야기 『우주로 날아라, 누리호!』.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을 함께 하기 위해 타임머신 T-23을 타고 지구에 온 코누 박사와 초코! 과연 코누 박사와 초코는 누리호 발사를 잘 지켜보았을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 알아보고, 초코와 함께 신나는 우주여행도 즐겨 보자!

로그라인: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과 문학적 비밀이 어린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진다. 자신의 수인번호 '264'로 불리던 이육사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독립운동의 치열함과 조국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 동화.

내 생애 첫 기억은 노을처럼 불타던 마을 풍경이다. 나의 14대 할아버지인 퇴계 이황 종택에 왜놈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다. 하인의 등에 업혀 피난을 갔던 그때 내 나이는 세 살이었다. 그때 일본이 고종 황제를 억지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없애버려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우리 안동 지역 의병장들 중에 퇴계 집안 출신이 많고 의병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종택에 불을 질렀다는 것도.

여섯 살이 되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며 할아버지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하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일찌감치 왜놈들의 세상이 된 것을 눈치 챈 할아버지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우리 형제들에게 한학을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나는 아무리 그 공부를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두 살이 되자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학문을 배웠지만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갔다. 대구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의문이 풀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선비의 길은 자연스럽게 나를 독립 저항운동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의병 연합군 대장이었던 왕산 허위 집안 출신 어머니의 가르침과 외갓집 식구들의 독립운동 활동도 구체적으로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우선 군자금 모집을 도우면서 청년단체 등을 통해 계몽운동에 힘썼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경찰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사십 평생 열일곱 번이나 이어진 옥살이의 시작이었다. 대구조선은행 폭파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 시절의 수인 번호가 264번. 진범이 잡힐 때까지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나는 이원록이라는 본명 대신 이육사라는 이름을 쓰기로 결심한다.

로그라인: 지구 소년 원흥은 병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마왕이 지배하는 외계의 가리온 왕국으로 모험을 떠난다.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사건 속에서,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한 소년의 용기와 희망이 그려지는 이야기.

이상시문학상, 박인환문학상 등을 수상한 함기석 시인의
가리온 왕국을 배경으로 숨 가쁘게 펼쳐지는
환상과 모험의 이야기!

『가리온 왕국과 하늘을 나는 아이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환상과 모험의 이야기

『가리온 왕국과 하늘을 나는 아이들』은 머나먼 외계의 우주, 낯선 별 낯선 왕국에서 펼쳐지는 죽음과 모험의 서사이지만 이 모두가 비유 장치들입니다. 마루얼 별은 지구고, 가리온 왕국은 우리 한반도의 또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이 동화는 줄거리 측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재미와 스릴을 만끽하게 하는 우주 환상 동화이지만, 주제 측면에서는 우리의 정신인 말과 글, 우리의 사회 우리의 땅,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에 종속되어가는 우리의 초상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사실 동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험과 재미를 선사하여 내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사회적 역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책이 이런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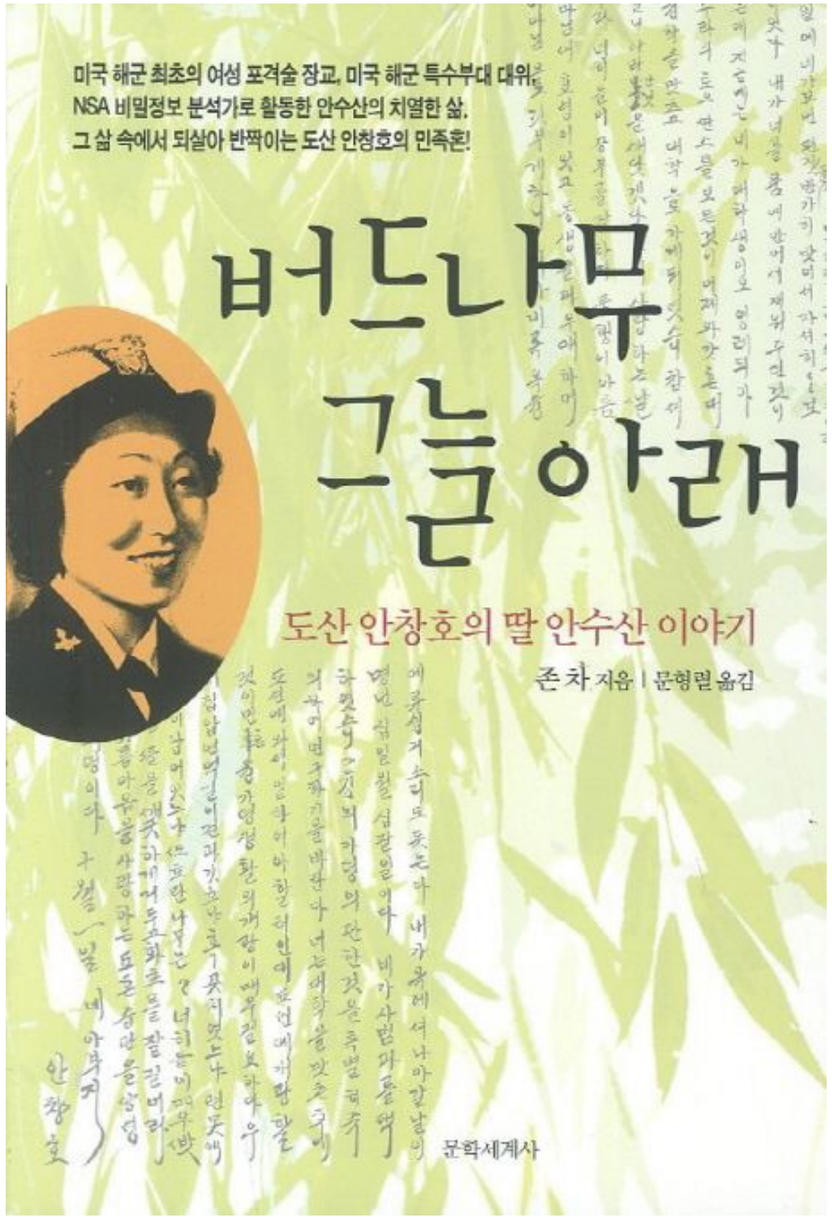
로그라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삶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이야기. 민족을 위한 헌신과 젊은이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한 도산의 정신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독립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전한다.

왜 도산 안창호를 읽히고자 하는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 흥사단 추천도서
지금은 도산 선생에게 배워야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면서도 젊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도산 안창호 이야기』는 4년에 걸친 철저한 고증과 감수를 거쳐 탄생한 안창호 전기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도산 안창호에 대한 전기는 여러 권 출간되었다. 하지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의 모든 자료를 받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도산의 삶을 바탕으로 집필한 후 여러 도산학 전문가들의 고증과 감수를 통해 검증을 받고 출간되기는 처음이었다.

'안창호 전기'를 발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료를 모아왔던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윤지강 작가는 2년여에 걸친 자료조사와 2004년에 한국을 방문한 도산의 장녀인 안수산 여사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토대로 원고를 집필했다.



로그라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안수산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그린 이야기. 일제강점기와 미국 이민 사회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그리고 미 해군의 최초 아시아계 여성 장교로서 그녀가 겪은 도전과 성취를 담아내며, 아버지의 가르침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중심으로 한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도산 안창호의 딸
미국 해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 안수산 이야기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버드나무 그늘아래』. 미국 해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 미국 해군 특수부대 대위, NSA 비밀정보 분석가로 활동한 안수산의 치열한 삶을 그린 작품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은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안수산의 삶 속에서 되살아 반짝이는 도산 안창호의 민족혼을 되새겨볼 수 있다.

"이 소중한 책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미국 서부의 개척기 시대에 치열한 삶을 산 한국인들에 대한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선구적인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능숙하게 그려내고 있다."

—— ELAINE H. KIM (버클리 대학 대학원장)

출간 예정

염기원이 온다!
별똥별처럼 쏟아질 염기원의 장편소설

『인류 최후의 아이들』 염기원 장편소설
인류 문명이 초기화된 상황, 생존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근간)

『등대마을 우주인』 염기원 장편소설
아들과 아내를 잃고 죽으려 했던 남자를 통해 구원을 얻는 세계인(근간)

『나의 싸이일촌답사기』 염기원 장편소설
내가 기억하는 나, 남이 기억하는 나, 무엇이 진실일까(근간)

『대학로 귀신들』 염기원 장편소설
믿을 놈은 단 하나도 없었다(근간)

『인간농장』 염기원 장편소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근간)

『우, 분투』 염기원 장편소설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남자가 우연히 소싸움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거대한 소들의 치열한 대결 뒤에 숨겨진 막대한 돈과 음모,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승부에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근간)

문학세계사

출판등록 제21-108호(1979. 5. 16)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9-1, 2층
전화 02-702-1800
팩스 02-702-0084
이메일 munse_books@naver.com
홈페이지 www.msp21.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unsebook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unse_book